

# 대책마련도 늦고, 시행 자체도 늦고...

###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소 노동자 폭염 예방책 '도마위' 지난 6일 각 학교에 공문... 현장선 이미 온열질환 호소

제주에서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이 잇따라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면서 마련된 각종 대책이 한 달이 지나서야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 6월 10일과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급식소 노동자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음식물 감

량기 안전대책 마련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여름철 폭염 관련 예방대책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폭염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름철 고온을 사용하는 조리방법(튀김, 전 등) 자제 및 간편조리 음식 사용', '조리종사자 근무시간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대기시간 활용'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방대책이 수립된

지 한 달이 지난 6일에서야 각 학교에 공문이 보내졌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10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40°C가 넘는 찜통같은 공간에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이로 인해 두통과 현기증, 구토, 땀띠 등은 열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잇따

르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어렵게 마련한 학교 급식소 폭염대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제때에 시행하는 교육청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공무직 제주지부가 지난 해 학교 급식소 노동자 508명을 대상으로 폭염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8%가 여름철 급식 중 열기로 인해 건강 이상(두통·현기증·구토·쓰러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61%는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경험해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토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현장 목소리 "쉬는 날, 1회성 아닌 근본 해결책 필요"

### "아이와 놀 수 있어" 환영 "선 다음날 택배 후폭풍 불보듯" 우려 목소리도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정해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이 1992년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래 28년 만에 첫 공식 '휴가'를 떠나게 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정을 촉구한 끝에 CJ·한진·롯데·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가입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합의로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됐다.

처음 맞는 '택배 없는 날'을 두고 택배노동자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4년차 택배 기사인 김모(37·제주시 이도2동)씨는 이번 택배 없는 날을 '단비'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어 항상 미안했는데, 이번에 3일 연속(14-16일)으로 쉬게 돼 정말 기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휴가는 택배 기사들에게 '단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 없는 날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8년차 택배 기사 양모(40·제주시 노형동)씨는 휴가 다음 날부터 폭증할 물량이 걱정이라고 했다. 양씨가 하루 평균 배송하는 물량은 200여개다. 양씨는 3일 동안 밀린 택배가 수

합되면서 배송이 본격화되는 날 '후폭풍'이 몰려올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씨는 "평소 끼니를 밥 먹듯 거르며 일을 하는데, 휴가가 끝나면 업무강도가 2배는 높아질 것 같다"며 "택배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이라 회사에서 '쉬었으니 더 해라'는 지침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는 고용형태"라고 말했다.

택배 없는 날에 못 쉬는 택배노동자들도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나 우체국 집배원들은 변함 없이 14일도 일한다.

우체국 집배원 오모(44)씨는 "우체국 측에서 정상 근무하는 집배원에게 업무량이 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는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물량이 (집배원들에게) 몰릴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배원은 14일이 아닌 다른 날 여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1년에 20여일 주어지는 휴가 중 평균 4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연차를 쓰면 동료들이 물량을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데 동료에게 부담을 줄까 봐 쉬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이 정말 '택배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동참이 우선 필요하다"며 "쉬는 동안 지연되는 배송 물량이 오히려 택배 기사에게 무리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와 1회성이 아닌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 "감사위, 랍사르습지위원장 사퇴압력 의혹 조사해야"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조전을 랍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부당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곶자왓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이번 조사 요청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며,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감사위에 "이번 조사 요청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금빛 울림 온라인으로 만나요**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가 1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아트센터와 문예회관 등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팀만 무대에 오르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관객 연주회를 만날 수 있다. 첫날 저녁 개막 공연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도합서귀포관악단의 최종 리허설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규기자

## 제주의고 일반고 전환 법정으로...

### 외고 학부모 어제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 "조례위반 소지 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1일 제주지방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제2회 의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 의제 설정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번 공론화 의제 청구에서는 제주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특정 단일학교 관계자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제 의제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인의 도민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맡긴 것은 객관성 확보 차원"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대응은 도교육청 의회·법무팀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일 제주외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속의를 여러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토론회'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개발공사 노무분야 소통채널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수평적 소통관계 형성으로 노사 및 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무분야 소통채널을 최근 구축,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업성장에 부합한 신규 인력 확대 및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노무환경의 불합리 요소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합리적 노사문

화를 재형성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정보를 직원간 수평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무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등 노사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노무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무분야 전문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소통채널은 사내 게시판과 온라인 채팅방 등 2개의 채널로 노무전문가가 전담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자는 무기명으로 내용을 작성해 상담받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의 경영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사장 직속으로 '소통상생협력실'을 신설했다. 백규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 광복 제75주년과 제주항 개항 제93주년을 제주항만물류협회가 함께 합니다.

사진제공 임성복

**"제주 물류의 중심지 제주항, 서귀포항 활성화와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주 항**

대성해운(주)	대표이사	강공 필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김 경 호
CJ대한통운(주)제주지사	지 사 장	김 찬 석	(주)한진 제주지점	지 점 장	문 종 탁
(주)제이비엘해운	대표이사	이 순 섭	(주)신 광	대표이사	정 갑 선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 영 근	(주)한라로지스틱	대표이사	김 송 자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고 성 원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 영 철
(주)한 동	대표이사	고 행 진	금강해운(주)	대표이사	장 기 조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오 용 택	거성물류(주)	대표이사	정 상 현

**서 귀 포 항**

삼진해운(주)	대표이사	김 상 완	삼성해운(주)	대표이사	김 만 호
(주)안정해운	대표이사	조 인 화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 영 근
CJ대한통운(주)제주지사	지 사 장	김 찬 석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오 용 택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 영 철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고 성 원
(주)한 동	대표이사	고 행 진	(주)한진 제주지점	지 점 장	문 종 탁

제주항만물류협회 제주시 임항로 111 / T. (064) 757-2925, 752-1990